

2017년 1월 12일

엘에스전선아시아 (229640.KS/Buy유지/TP:7,400원유지/CP:5,670원)

Update

이민재 (02-768-7895)

4분기를 시작으로 호의적일 2017년

베트남 전력 케이블시장 내 양적/질적 성장과 호의적인 거시환경 등에 따른 실적성장으로 PER 11배는 정당화될 것

• 이연된 수주 반영으로 실적 개선의 시작 분기

–2016년 매출액 3,542억원(−8.8%, y-y), 영업이익 212억(−4.3%, y-y),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33억원(+21.0%, y-y) 전망.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당사 예상치를 충족할 것으로 추정

–4분기 실적 개선은 3분기에 이연된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 반영되기 때문. 이연된 프로젝트들은 싱가포르 발전소 프로젝트(2,400만달러), EVN(베트남전력청) 가공선(600만달러), 삼성디스플레이 프로젝트(1,200만달러)

• 실적 개선으로 밸류에이션 논란은 사라질 것

–2017년 영업이익 231억(+9.3%, y-y),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55억원(16.5%, y-y) 전망. 이는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고마진 제품 확대에 따른 믹스개선 때문

–과거 판매된 구리 물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구리 가격 하락으로 외형 성장은 더딘 것처럼 보임(14년, 30,000톤(6,866달러/톤) → 15년, 34,000톤(5,515달러/톤) → 16년, 35,000톤(4,870달러/톤)). 2017년 구리 판매물량은 40,000톤(+14.2% y-y)으로 전망하는데, 구리 가격 상승까지 고려하면 외형 성장은 가능한 상황. 베트남 내 지중화 사업, 초고압 케이블 수주 확대 등 영업이익률이 높은 제품 믹스 개선효과 역시 긍정적. 또 LS CV내 광케이블 2개 라인 증설과 중압케이블(MV) 설비투자는 올해 안으로 완료돼 2018년에도 추가적인 외형 확대는 계속될 것

–현재 엘에스전선아시아의 PER(2017년 기준)은 11배. 국내 전선시장의 성장기였던 1980년대에 국내 전선업체들의 이익도 함께 성장함. 당시 전선업체들의 PER은 15–20배 수준. 엘에스전선아시아의 EPS(주당순이익) 성장률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한 상황

엘에스전선아시아 4분기 실적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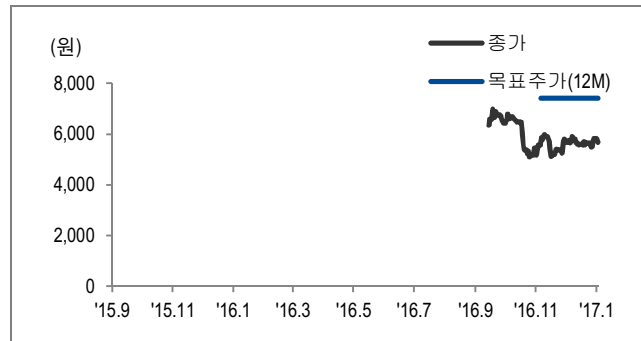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4Q15	1Q16	2Q16	3Q16	4Q16E					1Q17F
					예상치	y-y	q-q	기존추정	컨센서스	
매출액	104	93	90	75	97	-6.7	30.1	113	N/A	106
영업이익	6	6	6	4	6	-1.8	31.6	5	N/A	6
영업이익률	5.5	5.9	6.5	5.7	5.8			4.7	N/A	5.6
세전이익	N/A	N/A	N/A	N/A	N/A	N/A	N/A	N/A	N/A	6
(지배)순이익	N/A	N/A	N/A	N/A	N/A	N/A	N/A	N/A	N/A	5

주: IFRS 연결 기준.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망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내역

종목명	코드	제시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엘에스전선아시아	229640.KS	2016.11.15	Buy	7,400원(12개월)



종목 투자등급(Stock Ratings)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

-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 Buy : 15% 초과
 - Hold : -15% ~ 15%
 - Sell : -15% 미만

-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월 6일 기준)

- 투자 의견 분포

Buy	Hold	Sell
76.9%	23.1%	0.0%

-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변경되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투자 의견 비율을 주간 단위로 집계하여 기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엘에스전선아시아"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중단되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nhwm.com)에서 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